

北韓의 軍事力과 軍事戰略

白 鍾 天(陸軍士官學校 教授)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차 례

1. 序 論	3
2. 北韓의 統一戰略과 軍事戰略	6
3. 북한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變遷과 特徵	15
가. 제1단계(1945~1952) : 創軍과 南侵	15
나. 제2단계(1953~1961) : 戰爭의 反省과 再建	20
다. 제3단계(1962~1971) : 主體思想과 4大 軍事路線 構築	26
라. 제4단계(1972~1979) : 對話戰略과 軍事力 確立	33
마. 제5단계(1980~現在) : 軍事力の 政治的 利用	39
4. 北韓 軍事力과 軍事戰略의 評價	46
5. 結論 : 研究의 結果와 課題	60

1. 序 論

戰略은 일반적으로 目標+手段+戰略概念으로 정의되는 바, 군사전략에 있어서 手段은 군사력으로, 戰略概念은 좁은 의미의 군사전략으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政治的·軍事的 目標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상된 군사전략개념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로 하는 군사력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筆者는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넓은 의미의 軍事戰略的 측면에서 분석하고, 북한의 군사전략은 西方의 개념과도 달리 政治的 次元의 對南統一戰略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國際政治에 있어서 軍事的 手段의 유용성과 효용성에 대한 論爭은 국제 정치체계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하여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모든 국가들은 그들 國家安保의 최종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준비하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비밀로 하고 있으며, 戰爭抑止와 軍備統制를 위하여 어느정도 공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산진영 국가, 특히 북한은 軍事에 관련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군사정보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 고작이다.

이와같은 군사문제에 대한 情報의 한계와 이것이 수반하는 불확실성은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데 많은 주의와 신중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전략은 그 상대인 韓國을 상정하고 構想되었다는 사실은 軍事戰略과 軍事力이 단순히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다는 次元을 넘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동태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의 군사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와 분석을 하기 위하여 먼저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연구가 수반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상대방 국가의 現在 軍事力과 軍事戰略에 대한 情報를 수집함에 있어 대개는 가능한 단편

적이고 상충적인 과거와 현재의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상대방의 군사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 보다는 既存의 인식과 기대를 재확인시켜 주는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상대방 군사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 앞에서言及한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게 되므로 당연히 상대방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띠게되며 또한 적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는 과대평가보다도 國家安保에 危害하다는 판단으로 인하여 戰略家들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기 쉽다. 셋째, 전통적으로 상대방으로 부터의 위협을 평가할때 상대방의 의도보다도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의도는 敵對關係의 再評價 뿐만 아니라 국내 政治狀況과 지도층의 급변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能力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¹⁾

1) Daniel J. Kaufman, Jeffrey S. Mckittrck and Thomas J. Leney, (eds). *U. S. National Security: A framework for Analysis*(Lexington, Massachusetts : D. C. Heath and Company, 1985), pp. 29~30.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군사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문제, 軍事力과 戰鬥能力과의 관계, 군사력과 군사전략과의 관계 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방법론상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國際政治 學徒들은 相對國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분석, 이해하고 이에 對應할 수 있는 自國의 군사전략을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經驗的 方法에 의한 客觀的 實體의 규명으로 理論的 假說을 導出하고, 결론에서 이 분야의 연구발전이 필요로 하는 研究課題를 제안하고자 한다.

2. 北韓의 統一戰略과 軍事戰略

앞에서 言及한 바와 마찬가지로 政治와 軍事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그 연결고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韓國은 革命의 대상이자 統一의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전략은 단순한 軍事

的 차원보다는 政治的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좁은 의미의 군사전략·전술의 脈絡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對南統一戰略과 같은 정치적 맥락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필자는 북한의 군사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로서 북한의 군사전략과 통일전략의 관계를 糾明하고 이러한 연계속에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변화과정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戰略의 3大 要素라고 말할 수 있는 目標, 手段, 概念 별로 북한의 軍事戰略과 統一戰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戰略目標의 次元에서 볼 때 북한은 韓半島의 赤化統一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목표로서 戰爭에서 승리를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黨 規約 前文에서 로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規定하고, 또 당면목적으로서 “共

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그들의 정치적 목표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선 로동당 規約 46條는 北韓人民軍을 “조선 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하고, 48條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당과 수령, 인민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革命 戰士”가 되어야 한다고 規定함으로써 북한의 인민군은 로동당과 金日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군대임을 강조하고 있다.²⁾

이와같이 북한은 韓國을 美 帝國主義 식민지로 규정하고 그들이 한반도에서 치러야 하는 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전쟁으로 정의할 뿐 아니라 한국의 自由民主主義를 붕괴시키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은 한반도의 赤化統一을 위하여 군사력을 필요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

2) 조선 로동당 規約(1980. 10. 13, 第6次 黨 大會에서 改正) 參照.

적으로 사용하려는 意圖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北韓政權은 “主體思想”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정치, 경제, 군사등을 포괄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의 연결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 戰略概念의 차원으로 북한은 통일전략으로서 무력적화전락과 南朝鮮 革命戰略을 構想, 추진하는 바, 군사적 차원에서는 기습·속도전戰略, 間接·非正規戰略, 그리고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配合戰略을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戰略을 선택, 구사하여 왔다.

북한의 통일전략과 군사전략에서의 공세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결정적 시기’ 조성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이 결정적 시기 조성정책은 人民民主主義革命 路線에서 발상된 것이다. 북한은 韓國內의 同調 革命力量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反革命勢力을 타도하고 이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제1의 攻擊 對象으로 ‘美帝’를, 그 다음에는 ‘美帝’를

추종하는 地主와 買辦 資本家 및 官僚로 규정 짓고, 이들을 타도할 남한내의 혁명주력군으로서 노동자 및 농민 그리고 이른바 ‘民主人士’를 들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의 基本骨子は 남한내에서의 ‘先 革命·後 統一’에 있으며 이 先 革命의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는 북한의 多角的인 노력 가운데서 軍事的 範疇의 대안이 바로 ‘결정적 시기’ 조성 정책이다.

북한이 所謂 결정적 시기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66년 10월 제2차 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 金日成 基調演說에서 었다. 이때 金日成은 “南朝鮮에서 반혁명 세력을 타도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혁명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혁명역량준비가 없이는 革命的 대사변을 접할 수 없으며 적들의 日常的 反革命 攻勢에도 對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단계에서 南朝鮮 革命의 기본 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革命力量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성장시킴으로써 革命의 결정

적 시기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데 있다.”³⁾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이듬해인 1967年 12月, 最高人民會議 제4기 1차 회의에서도 이른바 ‘10大政綱’을 발표하면서 統一의 실현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발생하는 반미투쟁을 지원하고 革命을 위해 정신적·물질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결정적 시기란 그들의 전략 기조로서의 3대 혁명 역량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혁명 역량이 모두 갖추어진 혁명의 成熟期 또는 武力赤化의 절대적 호기를 말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한국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여 남한 정세가 극도로 혼란되고 國際與件이 유리하게 전개될 때를 말한다. 이것을 놓고 金日成은 革命의 勝利를 위해서는 “客觀的 情勢가 造成되는 동시에 革命의 주관적 조건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客觀的 情勢와 主觀的 條件이 유

3) 内外通信 第116號(1979年 3月 21日): 内外通信 綜合版 10, p. 123.

리하게 전개될 때를 말하며, 또 이때 南韓을 적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끝으로 북한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략 목표와 전략개념을 성공적으로 추구해 나가기 위한 통일전략 수단으로서 ‘3大革命力量’ 強化政策과 군사전략 수단으로서 ‘4大軍事路線’ 정책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統一戰略과 軍事戰略은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통일정책적 고려에 의해 군사력 사용의 제원칙이 서고 군사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軍事政策에 대한 理解도 그들이 추구하는 革命戰略 전반의 이해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즉, 軍事戰略的 結晶體의 성격이 강한 軍事政策에 해당하는 4대군사노선은 3大革命力量 強化와 관련되어서 살펴져야 한다. 원래 이 4대 군사노선이라는 것은 1962년 로동당 중앙위 第4期 5次 전원 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는 ‘조성된 情勢와 관련된 國防力 強化 問題’ 즉 經濟建設이 제약 받더라도 國防力을 강화한다는 결의와 동시에 채택된 것이

다. 이것은 中·蘇紛爭과 같은 국제관계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苦肉之策으로 구상된 것으로 나름대로의 軍事政策의 완성품이다. 이는 흔히 ‘별오리 회의’로 불리는 군사전략상의 반성과 그 후의 金日成이 행한 연설에서 강조한 ‘전쟁 승리의 5大 要因’이라는 것의 산물이다. 바꿔말해 6.25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 이후 이를 소화한 결정체가 바로 4대 軍事路線이라고 볼 수 있다.⁴⁾

한편 이렇게 군사 전략적 성격을 띤 4대 군사노선은 3大 革命力量 強化의 하나인 북한혁명역량 강화의 下位 政策에 해당한다. 즉 북한은 남조선 혁명이라는 당면 목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혁명역량 강화,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 등 이른바 3대 혁명역량을 대남적화의 基調로 삼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3대 혁명역량을 기조로 하여 북한은 민주혁명 기지 전략, 대남 인민혁명 전략

4) 이기택,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理論과 實際』 (서울: 일신사, 1988), pp. 367~368.

및 자주노선 전략 등으로 불리는 對南 적화전략을 構想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暴力革命戰術과 非暴力 革命戰術을 상황에 알맞도록 취사 선택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64年 2月, 4대 군사노선이 확정된 것보다는 2년 늦게 당 중앙위 제4기 제8차 全體會議에서 남한 혁명의 戰略 基調로 확정된 3大 革命力量 강화 정책은⁵⁾ 북한의 對南 혁명전략에 있어서 군사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게 만들었으며, 북한의 간헐적인, 소규모의 軍事的 挑發도 그 의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그것들은 아무리 소규모적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파괴·교란하고, 간접적으로는 南韓革命의 前進 基地를 構築하려는 의도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3大 革命力量 強化와 관련하여 군사력은 다양한 下位 戰略의 수립, 곧 다양한 남조선 혁명 전략에 큰 비중을

5) 조선 로동당 中央委員會 第4期 第8次 전원회의,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이한 편, 『北韓의 統一政策 變遷史』(서울: 온누리, 1989), pp. 245~256.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 전략과 군사력은 그들의 對南 統一戰略 및 革命力量과 깊은 連繫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보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아래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3. 북한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變遷과 特徵

가. 제1단계(1945-1952) : 創軍과 南侵

북한의 軍事力 및 軍事戰略은 스탈린주의의 전쟁 개념에서 출발하였다.⁶⁾ 蘇聯軍은 韓半島 진주시 대동한 북한 출신 共產黨 및 軍 간부와 蘇聯 국적을 가진 한인 2세로 하여금 共產黨과 赤衛隊 조직을 서두르도록 지도하여 이들 소련파가

6) 「北韓 軍事力과 軍事戰略의 變遷과 特徵」과 「北韓 軍事力과 軍事戰略의 評價」의 內容은 筆者의 아래 글을 再構成한 것임.

이상우의 共著, 『北韓 40年』 (서울: 을유문화사, 1988) 중 軍事編, pp. 325~437.

연안파 및 국내파 共産黨과 自衛隊 및 治安隊를 압도케 했다. 특히 1945年 10月 각종 무장단체를 해산시키고 무기를 회수한 후 保安隊를 창설하여 국내 치안을 담당케 하는 한편, 이듬해 2月에는 平壤學院을 설치하여 사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련파가 연안파 및 국내파와 서로 融和케 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여 土地改革을 단행, 土着勢力의 기반을 제거하여 정치적 안정을 달성했다.⁷⁾

북한은 철도 保安隊를 1946年 1月 保安隊와는 별도로 창설하여 이를 기간으로 1948年 2月, 즉 政權 樹立을 공식적으로 對內外에 선포하기도 전에, ‘朝鮮 人民軍’이라는 군대를 창설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平壤에서 閱兵과 分列式을 거행하였다. 더 나아가 蘇聯軍은 韓半島의 共産化를 위해 북한의 군사력에 공격능력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철수한다 하면서도 사단마다 150여명의 고문관을 잔류시켜 적극적인 군사원조

7) 한용원, 『창군』 (서울 : 박영사, 1984), pp. 182~189.

는 물론 공격적 훈련에 치중케 했으며, 撤收 後에도 외교사절로서 북한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陸軍과 空軍의 대령 출신자로 일련의 군사적 활동을 계속하였고, 6.25戰爭 計劃 작성에는 3,000여명의 蘇聯軍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軍事援助 및 防衛 體制와 관련하여 蘇聯은 1949년 3월 中國과 北韓의 수뇌부를 모스크바에 초청하여 ‘조·소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朝·中 相互 防衛協定’을 체결하도록 주재함으로써 이른바 삼각군사체제를 완성시켰다. 이 ‘조·소 비밀 군사협정’에서는 1950년까지 5억 4,600만달러 상당의 軍事 援助를 蘇聯이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도 있었다.

軍事力과 관련하여 蘇聯軍은 人民軍에 주로 공격능력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陸軍과 空軍을 육성했다. 구체적으로, 陸軍의 경우 戰車와 自走砲로 장비된 전쟁 수행능력을 제고시켰고, 이를 위해 1948년초 自國의 戰車師團의 主力을 철수시키면서 1개의 전차부대를 1948년까지 잔류시켜 인민군 전차부대의 훈련을 담당시켜 旅團으

로 증편했으며, 당시 韓國軍 主力砲에 해당하는 105mm大砲에 비해 사거리가 거의 두배나 되는 122mm大砲를 제공했음은 물론 YAK-9, IL-10등 新型 戰鬥機를 지원하고 200여명의 조종사에게 戰鬥能力을 부여했다. 蘇聯軍은 인민군의 실제적인 전투력 증강을 위해 ‘조·중 상호 방위협정’에 의거 1949년 후반기에 한국인으로서 中國軍에서 복무한 전투 경험자를 집단적으로 入北시켜 이들이 결국 人民軍 5, 6, 7 사단이 되게 했다.

또 蘇聯內에서 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3年 동안 高度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소련제 탱크와 航空機를 운용하는 核心要員들이 되었다.⁸⁾

바로 이와같은 배경에서 1948年 12月 북한 주둔 소련군이 먼저 철수하면서 남한 주둔 美軍의 철수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平和攻勢를 폈다. 북한이 주도권을 장악한 연속적인 일련의 평화공세는 미국을 곤란케 하여,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의 세계전략 개념까지 연결되었고

8) 陸軍本部, 『유엔군 전사』 第1輯, (1963), pp. 4-6.

주한 미군도 1949年 6月 500여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동안 북한은 社會主義 理念에 입각하여 共產主義式 政治·經濟的 改革을 단행하였고 蘇聯軍 지원 아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결정적 시기 조성과 관련하여 南韓內 여러곳에서 무장반란과 대중폭동을 조종하면서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策略을 폈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駐韓 美軍을 撤收시키는 것이었다.

美·蘇의 軍隊가 撤收한 이후 북한이 南侵할때 까지 북한은 강동정치 학원에서 양성한 2,400여명의 무장 게릴라를 남파, 남로당과 합세하여 각종 태업, 폭동, 테러, 포섭공작 등으로 한국의 사회 질서 교란을 노렸으며 6.25가 임박해서는 남침을 은폐하기 위한 남북통일 최고입법기관 설치(1950. 6. 19) 등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였다. 기간중 민주기지 노선에 입각한 북한의 공작도발의 특징은 남한 지역에서의 지하당 조직과 그 지

원을 통한 무장 폭동, 지속적인 무장 게릴라 남파에 의한 한국사회의 혼란 획책, 그리고 위장 평화공세를 통한 무방비 상태로의 유도 등 南侵의 결정적 시기를 촉진하는데 總力을 기울였다는 데 있으며 1949年 이후 10여차에 걸친 무장게릴라 침투는 6.25南侵 挑發의 전조였다. 또한 韓國 防衛에 관한 미국의 기본적 태도가 단적으로 표명된 이른바 ‘애치슨 라인’이 1950年 宣布되었는데, 이와같은 韓半島 防衛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태도는 결국 북한에게 고무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6.25 전쟁은 북한의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책과 韓國에 대한 미국의 軍事 援助의 抑制와 統制가 야기한 남한의 軍事力 劣勢로 인하여 결과된 것이다.

나. 제2단계(1953-1961) : 戰爭의 반성과 再建

休戰 이후 북한은 武力에 의한 共產化를 사실상 포기하고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路線을 채택하여 한국에서 反政府 統一戰線 형성을 위한 위장 평화공세와 지하당 공작에 역점을 둔

쪽으로 그 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 복구와 군비 재건을 위한 시간적 여유의 확보, 戰爭挑發者라는 국제적 낙인과 孤立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한국내의 강화된 반공의식의 와해 그리고 전쟁중 숙청되고 와해된 韓國內에서의 지하당 構築의 필요성 등 그들 나름의 對南 政策이 반영된 결과였다.

한편 蘇聯과 中國은 전쟁 지원을 통해 북한 軍事力과 軍事 政策에 각각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중 중국군의 參戰을 통해 從前의 蘇聯一邊倒로부터 벗어나 중국의 군사정책이 서서히 가미된 북한 自體의 독자적인 군사정책이 배태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蘇聯의 이른바 科學戰과 중국의 人民戰 사이를 오가다가 이를 전략적으로 종합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配合이라는 結晶體를 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군사력은 군사적 능력이나 혹은 군사 전략면에서 6.25전쟁을 거치면서 보다 완벽을 기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6.25전쟁 직후 북한은 駐韓美軍을 고려할 때 韓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軍事的 劣勢에 놓

여 있었다. 人力과 장비의 수적인 側面은 물론 그 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주한 미군의 철수 문제는 불투명한데 반해 中國軍은 1958년까지 철수하기로 된 狀況이 그들에게는 더욱 더 큰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중국군의 撤收 空白을 메꿔 수적 劣勢를 만회하는 것이 당연한 군사적 목표였음에 틀림없으나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전히 공세를 염두에 두고 노력하였다.

북한은 비록 蘇聯으로부터 군사원조의 결과이긴 하지만, 다음 [표1]에 드러나는 바와같이 수적인 측면의 병력 증강보다도 공군과 해군장비의 팽창에 主眼點을 두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대식 장비와 함께 山岳戰, 夜間戰鬪, 遊擊戰에 부합되는 새로운 武器를 자체 생산하여 새로운 군사교리에 맞게 武器體系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취급하였다.

1950年 부터 1960年 사이 北韓이 蘇聯과 中國으로부터 각각 5억 9,700만달러, 1억 500만 달러 정도를 經濟援助가 아닌 군원의 형태로 받은 것

[표 1] 북한의 군사력의 추세(1953-1958)

구 분	1953	1958
병 력	410,000	382,000
화 포	1,050	1,712
전 차	450	585
비 행 기	—	870
비 행 기 지	2	28
합 정	2,500 톤	18,850 톤

출처 : 한승주 「안보 정책과 군사전략」, 김준엽·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법문사, 서울, 1985), p. 249.

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기와 군함을 비롯한 軍事裝備가 소련제라는 사실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蘇聯의 계속적인 지원을 얻어 내기 위해 엽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북한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계속해서 在來式 戰爭을 고려하고 준비했다. 그러던 중에 4.19가 일어나자 그들은 이를 일련의 기회로 생각하여 각종 平和攻勢를 펴서 약체 민주당 정권에 부담을 안겨 주었다.

4·19以後 韓國의 학생들과 재야세력은 南北協商, 南北交流를 주장하는 소리를 높였고 심지어는 中立化 統一論도 거론하였다. 이제 統一論議는 정부의 통제권 밖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은 바로 이러한 事態를 赤化統一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자세로 맹렬하게 평화공세를 가해 국론분열을 유도했다. 1960年 8月 金日成은 8.15 해방 15주년 연설에서 첫째, 外國軍隊의 철수를 전제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한다. 둘째,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聯邦制를 실시한다. 셋째, 연방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南北 實業界 代表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 등을 발표하면서 駐韓美軍의 철수, 10만명으로 병력감축 등을 주장했다.⁹⁾ 이에 副應이라도 하듯 서울에서는 “統一만이 살 길이다.”, “板門店에서 만나자”라는 口號가 난무하여 혼란의 극을 향해 치달아 갔다.

9) 8.15解放 15週年 慶祝大會에서 한 金日成 演說, 「남북연방제 창설 제안」, 이 한편, *op. cit.*, pp. 109~115.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의 상황은 1961年 5.16軍事革命의 성공으로 진정되었으며 韓國에 철저한 反共政府가 수립되어 대공태세를 강화하자 북한은 지금까지의 平和攻勢를 급전환하였다. 다시 말해 韓國政府가 4.19를 前後로 한 혼란을 극복하고 보다 강력한 反共態勢를 취하자 북한은 既存의 태도를 급선회하여 경직된 자세 즉 정면대결의 자세를 노골화했던 것이다. 金日成은 5.16軍事革命 직후인 7월 6일과 11일에 蘇聯과 中國을 각각 방문하고,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1961年 9월에 열린 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는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帝國主義에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 封建勢力에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짓고 反帝 反封建 투쟁의 성공을 위한 ‘勞動者·農民의 獨自的’ 당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¹⁰⁾ 이는 일종의 前衛黨 創設을 공공연히 宣言한 것이었기에 국내

10) 조선 로동당 第4次大會 宣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ibid.*, pp. 190~197.

외의 비상한 관심을 일으켰다. 이때 북한은 이제 祖國의 '성공적인 統一과 革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후에 '3대 혁명 역량'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 같다.

다 . 제3단계(1962-1971) : 主體思想과 4大軍事路線 構築

북한은 1960年代에 접어들어 韓半島 統一을 위한 나름대로의 두 가지 전략을 개발했다. 平和的 統一이라는 心理戰과 혁명 게릴라전이 그것이다. 1965년까지 북한은 후자의 준비를 위해 前者의 戰略에 초점을 맞추었다.

1961年 한국에 反共 革命政府가 들어서자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처해야 했는데, 자신들의 政治力과 經濟力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한반도 平和統一을 위한 일련의 제안을 내놓았다. 文化 및 經濟 交流, 우편업무의 재개, 軍縮協商, 韓半島全體의 '自由'선거, 그리고 남북한의 聯邦制등의 제안이 그것이다. 이 모든 제안들은 곧 포괄적인 제안인 연방제로 종합되었다.

반면에 여전히 美國과 韓國에 대한 ‘반 제국주의와 반 봉건’의 기존태도는 강화했다. 1965년 중반부터 북한은 革命에 의한 統一, 즉 대남 혁명 게릴라전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1962年 북한은 군사에서 自衛와 自立을 강조하는 새로운 軍事政策을 발표하여 전략적 방향을 크게 전환했다.

북한의 軍事政策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긋는 이러한 변화 배경에 대해 다시한번 주목한 필요가 있다. 사실 1960년대 초부터 북한을 둘러싼 國際環境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1961년 韓國에 강력한 軍事政府의 出現, 1962년 쿠바 사태와 중·소분쟁의 격화, ‘선전포고도 없이 개시된 전쟁’인 월남전에 대한 케네디 행정부의 간섭 증가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중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은 美國의 대 아시아 정책에 매우 민감했는데, 이것은 韓半島의 勢力均衡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유엔이라는 이름하에 參戰한 美軍으로 인해 한국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한반도 전체를 統一하는데

있어서 美國을 唯一한 방해자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군사정책의 기본이 되며, 韓國戰爭으로부터 북한이 얻은 교훈을 기초로 하여 북한이 형성한 軍事政策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4대군사노선, 즉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무기의 현대화 등이 1962년 12월에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사실은 1961~62년 동안의 북한의 전략개념이 궁극적으로는 북한 自身의 獨自的인 노력으로 중·소의 것을 혼합한 것이었으나 이는 소련의 좀더 전통적인 戰爭 戰略으로부터 毛澤東의 持久戰 戰略으로 옮겨 갔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62年 12月 당 전원회의에서 군사력을 더욱 強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발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정권의 군사비 지출에서 증명되고 있는 바 “가령 國家豫算 가운데서 군사비 지출은 1961년에 2.8%에서 1964년에는 5.8%, 1966년에는 10%로 증가했고 이듬해인 1967년에 30.4%로 3배

나 急増한 뒤에 1971년까지 30%정도에서 유지되었다.”¹¹⁾

또 軍事力 構築과 관련해서 이 시기의 특징적인 면모는 비정규 특수부대를 철저히 강화시킨 사실이다. 앞서 言及한 바와같이 혁명 게릴라전은 이시기의 군사정책으로 강조되었다. 1965年 4月 한·일 條約이 이슈화되던 때에 김일성은 “南朝鮮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된 혁명가들의 핵심대열이 자라나고”¹²⁾ 있다고 공언하고 南朝鮮 혁명강화를 위한 戰略的 수행방도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는 “戰爭勝利의 결정적인 보장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혼용하는데 있으며, 경장비로 무장된 경보병 부대를 조직하여 유사시 산악전과 遊擊戰을 혼용함으로써 原子彈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비정규전을

11) 서대숙(서주석역), 『北韓의 指導者 金日成』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191.

12)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社會科學院에서 한 金日成의 演說(1965.4.14).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에서의 社會主義 建設과 南朝鮮 革命에 대하여」, 東亞日報社, 『資料로 본 北韓, 1945~1988』 (서울 東亞日報社, 1989), pp. 234~240

위한 각종 형태의 特殊部隊를 조직했다. 이러한 論理에 입각하여 1967년에 이미 창설되었던 124군 部隊가 1.21사태이후 대폭적으로 增編되었으며 이를 다시 17공수 낙하산 정찰단과 통합하여 2개여단으로 하였다. 오늘날에는 이를 특수 8군단이라고 부른다.

1960年代 말에 북한의 兵器生産은 小火器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박격포, 무반동포, 방사포 및 로켓포 등의 생산체제를 갖추어 1960年代 전반기에는 지상군 연대급 作戰이 가능한 병기를, 그리고 후반기에는 사단급 작전이 가능한 兵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1968年 4月 全國 青年 總動員 大會에서 金日成은 “祖國 防衛에 필요한 여러가지 군수품을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는가 하면, 동년 10月 김책공대 교직원, 학생들에게 대한 연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 마련된 工業의 土臺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래식무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國防 工業을 한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현대

적인 自動化 무기를 많이 생산하려면 자동화 계통 電子工學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는 現代的인 자동화 무기를 만들 생각을 하여야 한다”¹³⁾ 고 하여 自動化 系統에 속하는 군사장비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의 生産基盤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은 한편으로 4대 군사노선을 계속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南韓에서 사회분열과 政治的不安定을 획책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이러한 노력은 게릴라전으로 분명히 나타났다. 1965年에서 1970年 사이에 북한은 수많은 게릴라 特攻隊를 비무장 지대를 통해 남과 시켰다. 예컨대 1965年에 북한의 대남 敵對行爲는 88건에 달했으며 1967年과 1968년에는 그 수가 급증했다.¹⁴⁾ 그들의 目的은 궁극적인 재통일을 위한 序幕으로 남한에 革命的 土臺를 건설하는 것이다.

1960年代 후반 동안에 북한의 호전성에 대한

13) 『北韓總覽』(서울:北韓研究所, 1983), p.1570.

14) Rinn-sup Shin, "Foreign and Unification Policis," *Problems of Communism* (Jan.-Feb. 1973), p.61.

가장 중요한 설명은 북한이 스스로 채택한 長期革命戰略 즉, 3대 혁명역량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65年은 한국에 있어서 혁명역량의 강화라는 북한의 혁명전략의 제2단계의 출발시기이다. 북한은 1950年代末과 1960年代 초에 걸친 革命을 첫 단계 동안에 ‘북반부의 혁명역량 강화’라는 임무에 열을 올린 후 이제는 남한의 政治 社會的 構造를 약화시키고 혁명 기지를 수립하는데 집중하였다.

북한의 호전성은 朴正熙 大統領을 暗殺하기 위해 31명의 특공대를 파견했던 1968년 1월에 최고조에 달했다. 박대통령에 대한 암살기도에 이어 수차례에 걸친 북한 특공대의 동해안 上陸, 1968年 1月の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1969年 4月 공해상공에서의 美國 EC-121 정찰기의 격추사건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1960年代 후반에 美國에 대한 북한 정권의 호전성이 증가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1960年代를 통해 북한은 그들 방식대로의 韓國統一이라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목표를 유

지시커 나갔으며, 그에 따라 북한은 한국의 經濟, 軍事, 國內外 政治의 성공적인 수행을 가히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라. 제4단계(1972-1979) : 對話戰略과 軍事力 確立

1970年代 초에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相反되는 것처럼 보이는 軍事政策을 추구했다.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군사력 증강과 군사적 도발에 열을 올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짧은 기간이지만 대남 평화공세를 가했다.

1960年代 後半에 이를 때까지 집중적인 대남 게릴라전과 같은 것을 통해 내적 붕괴를 피하려는 북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내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대신에 그러한 노력은 역설적으로 韓國의 軍事力을 강화시킨 동시에 한국인의 반공의식만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國際 革命力量 強化와 관련하여 주요 동맹국들이 韓半島 統一을 위한 월남식 침략전쟁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

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다. 蘇聯은 계속해서 ‘平和的 統一’ 방식만을 지지했으며, 공해 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된 美國의 항공기 EC-121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미국과 협력하고 있었다. 蘇聯은 북한의 對南 侵略戰爭을 말로만 지지하는 식으로 美國을 帝國主義라고 비난했을 뿐이다. 또 中國은 과거처럼 한국전의 參戰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려는 性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강대국들간의 敵對關係가 이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북한은 國家豫算의 30%와 GNP의 15~20%에 달하는 대규모의 군비지출로 인해 국내적으로 경제적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南北對話를 수락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시키고 韓國의 군사장비 현대화 계획을 저지함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적인 軍事費를 덜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 優位와 더불어 餘裕資源을 순전히 경제분야에 투입하여 국내적인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南北韓 代表들은 1971年 8月 離散家族의 재결합을 논의하기 위해 적십자 회담을 개시했다. 또한 1972年 7月에는 한반도 統一을 위한 3대원칙에 合意했다. 그런데 南北韓이 회담을 통해 공동이익을 서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성명의 주요 조항을 해석하는 초기단계부터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격렬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남북한의 이러한 견해차이는 회담의 초기단계에는 어느정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그것들은 장기간의 협상을 통해서나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결국 오랜 國土分斷과 戰爭, 그리고 相異한 이념 및 사회체제의 주입으로 인해 남북한간의 相互 異質性 극복은 매우 길고 험난한 과정일 것임을 예고해 주었다. 예상한 대로 그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남북대화는 시작한지 채 3년도 못되어 政治的 相互 誹謗의 자세로 되돌아갔다.

1970년부터 1977년까지 北韓의 年平均 軍事費 支出은 14억 3,900만 달러이며 韓國은 9억 9,100

만달러였다. 이는 1960년대 군사비의 3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한편 1977년 북한의 1인당 군사비 지출액은 114달러였던 반면 한국은 43달러에 불과했다. 또 인구 1,000명당 병력수는 北韓이 總30名, 韓國이 16名이었으며 GNP에 대한 군사비比率은 19.6 대 9.5였다.¹⁵⁾ 간단히 말해서 1970년대를 통해 남북한 모두 군사비 지출을 계속해서 증가시켰으나, 군사력 확보에 소비한 비용과 인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북한이 한국을 능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美情報機關들의 당시 평가에 따르면, 1970년대 말의 북한은 모든 軍事的 側面에 있어서 남한보다 훨씬 優位에 있었다.

1970년대 북한은 南北對話와는 별개의 軍需工業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확장했다. 이 시기에 있어서는 兵器의 질을 높이고 증장비의 생

15)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1971*(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68-1977*(1979), pp.49~92.

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1970년대에는 기술혁명과 함께 兵器工業을 多面化, 專門化하고 西方으로부터 技術과 設備를 도입할 것을 계속 추구하는 시기였다.

이 기간중의 주요 병기 및 장비의 생산을 보면 122mm 및 152mm의 곡사포, 130mm 및 180mm의 자주포 등 중화기를 생산하는 한편, 대전차 화기로서 종래 생산해 왔던 PR-2 로켓포를 PR-7로 代替하였다. 그리고 주요장비에 있어서는 중국제 장갑차를 개조한 M-1973 장갑차와 K-61 水陸兩用 장갑차를 생산하였으며, 소련제 T-54/55 전차 또는 중국제 T-59 전차를 모방한 T-59를 生産한 뒤 1978년부터는 T-55 전차의 개량형 T-62를 蘇聯의 기술지원으로 생산하여 주력 전차화 하였다.¹⁶⁾

한편 함정의 건조면에서도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1970년대 前半期에 이미 각종의 고속정과 함께 유도탄 경비정을 비롯하여 1,500톤급 護衛

16) 『北韓總覽』, p.1569

驅逐艦과 1,4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海軍力を 강화하였다.

1970년대에는 航空 및 誘導武器를 제외한 본격적인 兵器工業 체제를 완성하고, 모방 생산단계로부터 자체 개발의 단계로 점차 이행하여 가는 시기로 평가된다.

한편 이 시기에 있어 對話戰略을 통한 결정적 시기 조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우선 南北對話에 나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속화시키려 했다. 북한은 南北 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가 駐韓 美軍의 철수를 加速化시키고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進展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당시에 박성철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금 美 帝國主義者들이 더이상 우리나라의 內部問題에 개입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그들의 ‘호전적 군대’와 함께 南韓을 떠나야 한다”¹⁷⁾고까지 주장했다. 이러한 脈

17)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研究所, *Collection of Basic Materials on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서울: 東亞日報社, 1974), p.259.

絡에서 북한은 南北 共同聲明을 그들, 보다 구체적으로 金日成의 統一路線에 대한 한국측의 굴복으로 여겼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공동 성명서에서 合意된 統一 3大原則에 대한 북한측의 立場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첫째, 外勢의 방해없이 自主的으로 통일하자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美軍을 내쫓자는 것이고, 둘째, 平和的으로 統一하자는 말은 남한의 軍 裝備現代化를 中止시키자는 것이다. 셋째, 理念과 制度를 초월해서 民族 大團結하자는 말은 南韓의 民主化와 反政府 運動하는 사람들과 단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면, 그들은 統一 政策에 있어서 根本的인 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해 軍事政策은 여전히 一貫性이 유지되었고 또 그들 나름의 戰爭能力을 이미 완성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마 . 제5단계(1980~現在) : 軍事力의 政治的 利用

북한은 1980년대에 접어들어 그들 나름의 軍事

政策과 그 下位 戰略을 이미 완성해 놓은 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對話와 테러라는 양극단 사이를 교묘히 오가며 그들의 意圖를 관찰시키려 하고 있다. 즉 포괄적인 軍事政策을 完成해 놓은 후, 軍事力을 국제 혁명역량 강화, 남한 혁명역량 강화와 같은 次元에 위치시켜 정치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북한의 軍事的 動向을 살펴볼 때, 그들의 軍事政策 및 戰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명확하기 때문에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첫째, 이미 兵力의 前進 配置를 완료한 상태여서 최소한의 병력 재배치와 더불어 化學武器를 사용하여 先制 奇襲攻擊을 함으로써 戰爭 勃發 초기에 작전 주도권을 장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둘째,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작전으로 前後方을 동시에 강화하여 온 결과 세계 최대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기에 이른 점이다. 즉 戰鬪地帶는 군단, 경비병 여단, 기갑여단 등의 크고 작은 부대를 배합하여 韓國軍의 주력을 섬멸하고 後方地域에서는 우세한 空軍力을 바탕으로 空中 攻擊과

特攻戰으로 후방 지휘계통과 병참 작전을 무력화 시킨다는 전략개념을 완성해 놓고 있다. 셋째, 5~7일 短期 決戰 개념으로 韓國軍 후방부대와 예비 병력이 동원되고 우방군이 증원되기 이전에 군사 작전을 종결시키려는 준비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작전개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북한이 갖춘 병력과 무기체계의 우월성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駐韓 美軍이 철수한 후에 韓國內의 돌발적인 情勢不安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또 그러한 시기에 대비하여 통상兵力을 증강시켜 둠과 동시에 心理戰, 匿名的 테러, 그리고 게릴라 침투와 내부교란에 의한 韓國國力의 증강속도를 둔화시키는 戰術을 驅使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몇 개의 선택가능한 代案中 익명적인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테러 활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을 지킨다”고 선전하고 있는 조선 로동당의 規約에 적합하고, 局地戰을 치르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또한 韓半島에서의 전쟁 발발을 반대

하는 蘇聯·中國의 제지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럽다. 테러 활동에 대해서는 미국의 억제정책도 유효하지 않으며, 事件後 國際 輿論의 비난도 테러활동의 경우 회피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1983년의 버마 사태와 1987년의 KAL 機 爆破事件에서 잘 입증되었다. 결국 테러는 피해 당사국에 대하여는 損失이 큰 반면 가해국은 손실이 적게 끝날수 있는 非正規戰의 한 형태이다.

1988년 현재 人民軍으로 呼稱되는 北韓의 現役은 84만 2,000명 으로 全體 推計 人口 2,168만 8,000명의 약 4%에 달해 人口 1,000名當 兵力數가 40名이나 된다. 이 人口 對比 現役兵力 비율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世界 2位이다. 또한 豫備兵力 중에서 現役に 준하는 교도대와 노동 적위대 및 붉은 청년근위대 등까지를 고려할 때는 그 비가 무려 19.2%에 이른다. 또 인민 경비대와 社會安全員까지를 합한다면 20%를 훨씬 上廻하여 어떻게 보면 이미 動員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¹⁸⁾

18) IISS, *Military Balance, 1988~1989* (Autumn, 1988), pp.167~168.

陸軍의 경우 1979년보다 5만여명이 증가된 75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機甲化, 車輛化, 機械化된 機動性を 증가시키기 위하여 여단급 부대로 재편성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육군에는 무엇보다 8만여명의 特殊部隊가 있는데, 이러한 非正規戰部隊가 正規兵力의 10%를 차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비정규전 부대의 다량 보유와 韓國軍이 보유한 기종과 똑같은 헬기, 多量의 글라이더 그리고 잘 갖추어진 上陸 및 渡河裝備를 서로 연계시켜 보면 그들의 군사전략에 있어서 최근으로 오면서 발전시킨 正規·非正規戰의 배합의 具現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示唆해 주고 있다.

海軍의 경우 總兵力數는 3만 9,000명에 달한다. 北韓은 일부 구형 잠수함의 퇴역(27에서 21대로)과 함께 어뢰장착 高速 공격정을 136척에서 173척으로 증가시키고 각종 함정에 신형 533mm 어뢰를 적재하는 등 함대무장을 현대화하였다. 潛水艦을 포함한 그들의 총 함정수는 564척으로 韓國보다 우위에 있다. 이 海軍力에 있어서 특

징적인 면은 小艦, 多艦, 高速 및 火力 主義를 選好한다 할 수 있겠다. 물론 최근에는 外港 能力과 내해성을 고려해서 大型 戰鬪艦의 건조를 서두르고 있으나 보다 留意해야 될 점은 上陸 舟艇이 급속하게 增加되어 126척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륙용주정은 육군의 비정규전 부대의 은밀한 침투나 強襲 上陸手段으로 사용될 것이 틀림없다.

空軍力の 경우 兵力은 總 5萬 3,000名이며, 航空戰術機 총수는 일부 구형항공기의 퇴역으로 800대를 保有하고 있다. 여기에다 무장 헬기 170대를 합하면 한국의 473대의 2배에 가까운 數値이다. 기종별로는 多樣한 면모를 보인다. 비록 신예기보다는 低速 航空機라 할 수 있는 MIG15/17/19 등이 400여대에 이르나 이 기종도 韓半島의 地形的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地上攻擊用 Su-25 전투기 10대를 새로이 도입, 배치하고 MIG-21/23을 각각 10대와 6대씩 증강시켰다. 그리고 AN-2, AN-24 260대를 포함하여 다수의 수송기 保有

역시 의미 심장하다. 특히 그들이 다수의 수송기를 보유한 것은 그들의 군사전략에 따라 이른바 유생역량의 격멸을 위한 수직포위부대의 空中投入, 그리고 韓國의 내륙 깊숙이 침투시킬 特殊部隊의 운반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측면과 대조적으로 전폭기 수를 늘리면서 滑走路와 기지의 수를 증가시켰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이 DMZ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

한편 북한의 豫備兵力은 總 500여만명으로 앞서 말한 바와같이 準 戰時狀況의 動員體制와 흡사하다. 따라서 북한 사회는 高度로 軍事化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南北對話 재개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對南 革命의 決定的 시기조성을 위해 高度의 和戰 兩面戰術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1985년초까지 계속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은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 事態를 벌인 후 12월에 또다시 무장간첩을 부산 다대포 海岸에 침투시키려 했다. 그 以前인 6월에도 臨津江 水中 침투

사건, 8월의 월성해안 침투사건, 울릉도근해 무장 간첩선 침투사건 등 간단없는 침투도발 책동을 벌였다.

이러한 浸透 挑發의 의도는 對內的으로 각종 南北對話 재개에 따르는 韓國國民들의 정신적 해이를 틈타 사회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극도의 統治危機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對外的으로 88서울올림픽 방해와 관련해서 ‘韓半島의 緊張性’을 조장하여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서는 부적당하다는 輿論을 조성시켜 東歐圈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불참케 하려는 것이었다.

4. 北韓 軍事力과 軍事戰略의 評價

軍事能力은 일반적으로 2가지의 武力 形態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常備軍 戰爭 遂行 能力(상비전력)이고, 다른 하나는 豫備軍 戰爭 遂行 能力(예비전력)이다.

常備戰力은 일반적으로 현역군 능력과 동일하지만 그 國家의 軍事 動員態勢 여하에 따라서는

예비전력 일지라도 부분적으로 여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할 경우가 많다. 즉 북한의 경우 南侵戰을 감행할 전쟁 개시 시간의 선택은 그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豫備戰力의 대부분을 이미 동원한 後 현역화시킨 다음에 戰爭을 도발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韓國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소부터 즉각 현역화가 가능하도록 수립된 북한 군사체제상의 특성으로 보아 이미 軍團에 배속시킨 사단 편성의 교도대는 그 訓練水準과 裝備保有狀態를 보더라도 常備戰力으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西方側 軍事 組織上의 개념에서 보는 상비전력의 세부분야는 육군, 해군 및 陸戰隊(해병대), 공군, 그리고 特殊軍 등 각군별 병력규모와 장비현황 및 攻防戰 遂行을 위한 戰力 展開 狀態(兵力 配置)가 망라된다. 예비전력은 일반적으로 準軍事 部隊 能力이라고 볼 수 있으나 前述한 特殊性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군사 조직상의 편제와 규모, 훈련 및 장비보유 상태가 포함된다.

1988年 現在 南北韓의 戰力을 比較해 보면〔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北韓의 軍事力은 대체로 84만명으로 準正規軍에 해당하는 교도대와 노농적 위대를 제외해도 韓國이 劣勢하다. 북한의 병력은 人口 1,000名當 40名이며 韓國은 14名이다. 또 북한은 지상군 장비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차가 韓國에 비해 3倍 정도되며 야포도 1.5倍 정도 우세하다. 그리고 박격포는 약 2倍, 대공포는 10倍 이상이나 되며, 유도탄은 4倍 가량의 優勢를 보이고 있다.

陸軍의 경우 주요 전투부대 중에서 特殊任務部隊, 즉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부대가 차지하는 構成比는 북한이 韓國에 비해 높다. 사실 북한은 각종 특수전 능력이 완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세계 최대 규모인 8만의 特殊戰部隊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병력을 레이더로 잘 探知되지 않는 250여대의 AN-2기와 한국군의 주력 헬기이기도 한 500系列 휴즈헬기 80여대를 이용하여 후방 깊숙이 침투시킬 전략을 짜고 있다. 주요 전투장비를 볼 때 誘導武器 部

[표 2]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구분		북한	한국
국방예산		41.3억불	57.3억불
인구		21,688,000	42,912,000
정규군		842,000	629,000
예비 전력	육군	500,000	1,400,000
	해군	40,000	25,000
	공해군	-	55,000
	해병	-	60,000
	민방위대	-	3,500,000
	농노경비대	3,000,000 38,000	- 3,500
육군		750,000	542,000
사령부	군사령부	-	3(1개예비군사령부)
	군단사령부	-	7(각 4개사단보유)
	기갑화군사령부	3	-
	전군사령부	8	-
사단	장갑화군사령부	1	-
	차량화보병사단	1	-
	기계화보병사단	-	2
여단	보병사단	25	19
	장갑여단	15	-
	차량화보병여단	20	-
	독립보병여단	4	1
포병	특수전여단	25	17
	군포병단	-	-
	중보연대	2	-

구 분		북 한	한 국
포 병	박격포연대	2	-
	지대지미사일대대	6	2 (여단, Honest Jonh)
	군단포병단	4 (포병여단)	-
	방공포	2 (방공사단) 7 (방공연대)	2 (방공포여단) 2 (지대공미사일여단)
육군 항공 여단		-	1
예 비 병 력		2 (보병사단) 18 (독립여단)	23 (예비사단) 1 (군사령부)
기 갑 력	전 차	3,300	1,500
	장 갑 차	1,690	1,050
포	견 인 포	1,600	3,100
	자 주 포	2,300	100(이상)
	다발 로켓포	2,500	140
	지대지 미사일	69	12
	박 격 포	11,000	5,300
대 전 차 포	무 반 동 포	2,500	?
	견 인 포	?	8
	자 주 포	800	50
	대전차유도무기	AT-1 Snapper AT-3 Sagger	TOW
방 공 포		8,000(14.5mm - 100mm)	600(20mm - 40mm)
지대공 미사일		SA-7	Javelin, Hawk, Nike
육 군 항 공		공군에서 운용	60 (항공기) 314 (헬 기)
해 군		39,000	29,000
함대 사령부		2	3
잡 수 합		21	3

구 분		북 한	한 국
구 축 합		-	11
프 리 게 이 트 합		2	18
초 계 합	코베트합	4	-
	미사일적재고속공격정	30	11
	어뢰적재고속공격정	173	-
	초계정	158	94
수 룝 양 용		126	52
소 해 합		40	9
지 원 합		2(예인선)	5(예인선, 공급선)
대 잠 항 공 기			2(함대) 1(항공전대:S-2A/E-17) 1(헬기 편대)
기 타	해 병 단	연안 경비대	25,000
	사 여 단		2
	전 차		1
	병력 수송 장갑차		40
	건 인 포		60
	미 사 일		105xx, 155xx Harpoon
공 군		53,000	33,000
전 투 기		800	473
전 술 기	폭 격 기	80	-
	전 투 기	420 (9연대)	284 (18중대)
	요 격 기	266 (12연대)	68 (4중대)
지 원 기	수 송 기	282 (10연대)	52 (2비행대, 5비행 중대)
	헬 기	170	육군에서 운용
기 타	훈 련 기	250	210
	공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AA-2 Atall 4개 여단	Side winder, Sparrow 육군에서 운용

출처 : International Institued for Strategic Studies, *Military Balance*, 1988-89 (London, 1988), pp. 167-169.

門과 T-62와 같은 경전차 부문에서 북한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水陸兩用 輕戰車의 경우 한국은 1대도 없는 반면에 북한은 무려 300여대에 달한다. 또한 북한의 부대는 韓國에 비해 機甲, 機械化, 그리고 機動性이 양호한데 북한은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즉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先導로 하는 突破 및 包圍, 機動과 戰果 擴大를 보장할 수 있는 步戰協同作戰을 용이하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 공히 우수한 對戰車 武器를 가지고 있어서 전차의 효율성이 어느정도인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韓半島의 地形條件을 고려할 때 전차의 효율성은 개활지가 많은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北韓은 化學戰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대체로 總量 180내지 250톤 정도의 化生放 무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며, 이러한 化學彈을 107mm 구경이상 포와 로켓포, Frog 5, Scud B, 항공기 등으로 운반, 공격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可

恐할 化生放 武器가 전진 배치된 부대에 각각 45-62톤을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로, 가히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된다.¹⁹⁾

海軍力の 경우 북한이 속도가 빠른 小型 함정을 자체 생산을 통해 다량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계속하여 일반 고속정의 대폭적인 증가를 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부터는 공격과 침투능력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상륙주정 역시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으로 21척에 달하는 잠수함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韓國에 위협적이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로미오급, 위스키급 潛水艦들은 小型이고, 電氣로 作動하여 편리한 점이 많다. 물론 航海 速度가 느리고 騒音이 많은 단점도 있다.

空軍力の 경우 북한은 數的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韓半島의 지형적 특성이 고려된 低速 航空機, 浸透部隊의 침투능력을 제

19) 다음 글을 참고. "CW : North Korea's Growing Capability," *Jane's Defence Weekly*(14 Jan. 1989).

고시켜 주는 AN-2機, 헬기, 수송기는 물론이거니와 폭격기까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의 韓半島 軍事情勢에서 현저한 것은 북한의 대폭적인 軍事力 증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1985년부터 進行된 대폭적인 군사력 증강을 뜻하는데 1960년대 말부터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一貫해서 계속되었고, 大幅的인 증강은 1978~1979년에도 실시되었으나, 이번은 質과 量에서 종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 특색이다.

1970년대 以後의 軍事力 增強에 의하여 단독으로 一定期間 동안 戰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 1985년부터는 地上 병력의 증강, MIG-23의 新規導入과 早期 戰略化, 안토노프-2, Mi-2 헬기, 함정, 戰車의 증강, 휴즈 헬기의 武裝化, 그리고 기갑부대를 후방에 독립 배치시켰던 것을 3~4個의 기갑부대로 集約시켜 전방에 배치시킨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裝備의 國產化가 한층 추진되었으며, 化學武器 도입을 이미 실현하였고, 政治·軍事를

統一指導하기 위하여 ‘戰略 安保計劃 委員會’를 발족시켰다. 이러한 것은 武器體系의 변화, 部隊 構造와 戰術의 변화가 2년도 안되어 한꺼번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북한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첫째, 奇襲攻擊 능력을 높였고, 둘째, 速度戰 능력을 높였으며, 셋째, 지금보다도 단독으로 戰鬥할 능력이 증가되었으며, 넷째, 보다 큰 피해를 상대방에 줄 수 있는 軍事 能力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쟁수행의 能力의 차원에서 볼 때, 北韓의 軍事力, 특히 지상군 戰力은 세계 第3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1988年 現在 現역 84萬 2,000名으로 전체 推計人口의 約 4%에 달하며 人口 1,000名 當 兵力 수가 40名에 가깝다. 또한 現역에 준하는 교도대, 勞農 赤衛隊 및 붉은청년 근위대 등의 예비병력까지 포함한다면 人口에 비례한 兵力 比率이 20%에 다다른다. 여기에 인민경비대와 사회 안전원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이미 동원된 상태라고 간주해야 한다.

북한 軍事力에 대해 주목할 사항은 공격 위주

의 편성과 장비이다. 북한은 韓國 地上軍에 비해 훨씬 강한 火力과 빠른 기동장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地上軍 正規兵力의 10%를 차지하는 8萬여명 以上の 特殊部隊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 군대에서 드문 예이다. 이런 특수부대와 함께 機甲化·輕量化·機動화된 부대 편성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정규전 및 비정규전의 配合를 통해 항시 공세위주의 군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북한 군사 정책의 기본방향을 말해준다고 본다.

북한은 美國의 支援兵力이 輸送되기 전에 南韓 地域을 전면 점령할 速戰戰略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북한 공군력은 기습공격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多數, 多種의 輸送機를 보유하고 있으며, 戰爆機의 증편과 함께 활주로와 飛行 基地의 數를 休戰線 부근으로 이동,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小艦, 多艦, 高速 및 화력주의를 선호하는 海軍力量은 高速 誘導彈艦, 大型 초계정, 小型 고속주정 및 21척의 잠수함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後方 浸透와 강습 상륙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최근의 군사정세에서 현저한 것은 北韓의 군사력 증강의 폭과 速度라 하겠다. 1960年代 말부터 軍事力은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증강되어 왔으나, 1985年을 전후로 진행된 대폭적인 軍事力 증강은 質과 量에서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북한의 軍事力 증강은 韓國의 軍事力 건설과 깊은 관계가 있다. 지난 10여년간 2배정도 증강된 韓國軍 戰力에 대해 계속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北韓은 이미 GNP의 20% 이상을 軍事力量 증강에 관련된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武器體系의 변화, 部隊編成의 변화, 戰術의 변화를 2~3年 사이에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제는 더욱 강해진 기습 공격 능력, 速度戰 능력, 單獨 戰鬥 능력 및 大量 被害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은 高度로 軍事化된 공세 위주의 戰力 優位 力量을 이미 갖춘 채, 이를 활용할 決定的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는 3大

革命 力量에서 北韓革命 基地化 단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란 3大 革命 力量이 모두 갖추어진 革命의 성숙기 또는 武力 赤化의 절대적 好機를 의미한다. 북한이 한국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며, 남한 정세가 극도로 혼란되고, 國際 與件이 유리하게 전개될 때인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4大 軍事路線의 완성을 통해 북한에서의 革命力量은 이미 달성한 것으로 自信하고 있다. 따라서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단계로서 그동안 꾸준히 人民 民主主義 기지 조성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學生들의 反政府 示威를 포함한 일련의 지속적인 反體制 運動의 深化를 그 노력의 결실로써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軍事政策 次元의 결정적 시기 조성 政策은 平和攻勢의 일환으로써 南韓 住民은 물론 제 3 국민에게 好意的 반응을 받기에 충분한 한반도의 非核地帶化, 軍備 縮小 및 駐韓美軍 철

수와 같은 군사문제 先決을 들고 나오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반적인 政治的 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南韓社會의 갈등을 이용하는 다양한 戰略 戰術을 실천하고 있다.

國際 革命力量 강화를 위해서 앞서 본 바와같이 北韓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부작용을 낳으면서도 力量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대체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力量 增加 事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南韓 共產化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다는 조짐이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이 革命力量을 증가시켜 오는동안 韓國도, 國際與件도 많이 변해서 그들의 南韓 解放 노력의 성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변화로 인해 북한은 政策의 변화를 考慮해야 할 압력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韓 共產化라는 목표는 수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딜레마를 안고 있다.

북한은 金日成의 領導力 아래 全韓半島의 共產

化, 全民族 解放의 완성이라는 목표에 모든 정책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이 목표의 수정 또는 포기는 金日成의 지위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 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對南 軍事政策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또 期待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韓國 軍事力을 견제하기 위해 그리고 필요에 따라 南韓解放에서 군사적 방법을 사용할 결정적 시기를 위해 一貫된 戰力 優位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5. 結論 : 研究의 結果와 課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들의 군사전략과 對南 통일전략이 상호 보완적인 연계를 형성하면서 추진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北韓의 3大革命 力量과 對南 군사적 행동은 직접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筆者는 아래와 같은 經驗的 假說을 제시하고자

한다.²⁰⁾

假說 1 : 북한의 혁명역량과 남한의 혁명역량이 높고 국제적 혁명역량이 호의적이면,北韓은 韓國에 直接的, 攻勢的 軍事行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假說 2 : 북한의 혁명역량과 남한의 혁명역량이 높은 반면 국제적 혁명역량이 비우호적인 경우, 북한은 韓國에 대하여 間接的 軍事行動이나 게릴라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假說 3 : 북한의 혁명역량이 높고 남한의 혁명역량이 낮으며 국제적 혁명역량이 비우호적인 경우, 북한은 韓國에서 ‘南朝鮮 革命’ 戰略을 追求할 가능성이 크다.

2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說明은 다음 글을 參考할 것.

Jong-chun baek,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ies for Reunification: Hypotheses and Policies," Jung Hyun Shin, Tae-Hwan Kwak and Edward A.Olsen (eds.),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Peace: Toward the 1990s*(Seoul: Kyung Hee University press, 1988), pp. 159~178.

假說 4 : 북한의 혁명역량은 높고 남한의 혁명역량이 낮으며 국제적 혁명역량이 우호적인 경우, 북한은 韓國에 대하여 軍事的 行動과 ‘南朝鮮 革命’을 모두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假說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북한의 軍事力과 軍事戰略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軍事力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理解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신중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어느 戰略家에 의한 북한 군사력의 評價는 당연히 일반 독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는 다시 國家 安保政策에 대한 그들의 공식적 지지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軍事力을 評價하는데 있어서는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나아

가서 북한의 軍事力을 단순히 양적, 정태적 分析 方法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차원에서부터 보다 세련된 動態的, 質的 분석 方法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²¹⁾

끝으로 북한의 軍事力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은 북한의 軍事戰略이나 군사적 위협을 헤아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軍事 安保戰略을 수립하는 차원뿐 아니라 南北韓間의 緊張을 해소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시키고 韓民族의 平和的 統一에 이르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남북한 軍비통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해결돼야만 하는 課題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정부수립 이래 1984년까지 南北韓 當局이 제의한 總 121회의 軍縮, 軍備統制會談 중에서 北韓은 86회(細部提案 158회), 韓國은 35회(細部提案 48회)를 각각 제의한 통계에

21) IISS, "NATO and Warsaw Pact Conventional Forces, *Military Balance 1988~1989*(Autumn, 1988), pp. 233~236.

서 나타난 바와 같이²²⁾ 북한은 선전적 차원에서 韓國을 압도하였다. 내용면에 있어서 북한은 駐韓美軍 철수, 相互 軍隊 10萬名으로 감축, 非核地帶化 선포, 非武裝 地帶의 군사철수 및 평화적 이용 등의 實踐的 措置와 意志를 결여한 비현실적, 군사적 제안을 일관성있게 제의한 반면에, 韓國은 비록 간헐적으로 제안하였으나 非軍事的 側面의 合理的 軍備統制 方案을 주장해 왔다.

南·北韓 當局이 군비통제 문제에 대하여 이제까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을 정리하면 北韓은 ‘先軍縮, 後 政治的 妥結’을 주장한 반면 韓國은 ‘先政治的 妥結, 後軍縮’의 접근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南·北韓 當局의 군비통제문제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방법은 단순한 政策的 政略的 側面 뿐만 아니라 國際政治 이론의 차원에서도 論爭이

22) 양성철·조덕현, 「南·北韓 軍事統制 提案 分析 및 評價」, 『韓國政治學會報』 21輯 1號(1987), pp. 93 : 112~113.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²³⁾ 이러한 軍備統制에 관한 이론연구와 더불어 軍事力の 측정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23) Edward E.Azar, "Protected International Conflicts : Ten Proposition," Edward E.Azar and John W.Burton, (eds),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Sussex, U. K : Wheatsheaf Books : 1986). p. 38 ; Samuel P.Huntington, "Arms Race : Prerequisites and Result," Robert J.Art and Kenneth N.Waltz, (eds.), *The Use of Force*, 2nd ed.(Lanham : New York · London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pp. 469~472.

北韓의 軍事力과 軍事戰略

1989年 8月 10日 印刷

1989年 8月 16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話：234-4102
